

濯纓 金駟孫의 樓亭記 研究*

문범두**

|| 차례 ||

1. 序論
2. 記와 樓亭記
3. 記述 方式과 構成的 特性
4. 士林 精神의 形象化
5. 結論

【국문초록】

탁영은 비교적 많은 수의 누정기를 남겼다. 이 연구에서는 누정기의 양식적 특징을 개관하고, 그 변용의 과정에 반영된 탁영의 문학적 성취와 작가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는 기본적으로 비망기적 기록을 목적으로 한 한문문체로서, 전서사 후의론의 형태를 갖춘 것이 정형이 된다. 누정기는 기의 하위양식으로서 건축물과 관련된 직, 간접적 사실 정보를 단락요소로 하여 구성된다. 누정기가 다른 한문산문에 비해 특별히 문예미가 높은 것은 누정이 지니는 위치, 용도, 명의 등의 고유한 성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누정 작가는 이를 적의하게 연변시킴으로써 문예미학적 효과를 높이고 작가적 사유를 개입시키게 되는 것이다.

탁영은 경물 묘사에서 가시적인 물상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연경물과 인문적 사상을 진지하게 성찰함으로써 이를 내면의 지적 인식과 적의하게 조응시키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자신이 서사세계의 주체가 되어 누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누정이 그에게 있어서 단순한 유희의 장소가 아니라, 자연을

* 이 논문은 진주산업대학교 2008학년도 기성회혜외중기연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진주산업대학교 교수.

통해서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이념적 지향이 응집되고 귀결된 지점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탁영 누정기에서의 의론부분은 입론-칭상 또는 입론-칭상-권계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서사의 과정이 연역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논증형식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공감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입론으로 삼은 유학적 이념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행위로 실현될 수 있음을 예증하게 되는 것이다.

탁영은 문학을 도의 구현수단으로 이해하였다. 누정기의 의론에서는 유학의 일반적인 도를 입론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 도는 사림의 일원으로서 지닐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방식도 있을 것이다. 사림의 성리학은 실천적 경향을 보였는데, 정치적으로는 의리실천을, 개인적 차원에서는 윤리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누정주에 대한 칭상, 권면을 통해서 이를 드러내려는 작가의식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주제어 : 기, 누정기, 한문문체, 산문, 유학, 김일손, 사림

1. 序論

탁영 김일손은 세조 10년(1464)에 출생하여 성종을 거쳐 연산군 4년(1498)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성종조 중용되었던 김종직의 문도로서 벼슬 길에 나아가 여러 관직을 거쳤다. 사관으로 재직시 스승이 지은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일어난 무오사화로 화를 당하였다.

탁영의 수학과정과 출사, 官歷은 당대 士大夫家 출신 중에서도 비교적 순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상도 청도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기부터 뛰어난 자질을 보여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15세에 이르러서는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하였고, 16세에는 한성부 진사 초시에 합격하였다. 17세에 점필재의 문하에 나아갔으며, 이후 동문의 문인들과 두루 교의를 나누었다. 23세에 영남좌도의 감시와 초시 양장에 1등과 3등에 오른 뒤, 복사에서 생원 진사에 합격하고, 그 해 갑과 제2인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정자 겸춘추기사관

으로 첫 벼슬을 시작한 후, 홍문관정자 겸경연전경 춘추관기사관과 진주목 학교수, 요동질정관 서장관 등을 거쳐 사헌부감찰 시간원헌납 경연시강관 양관응교 춘추관편수관 충청도사 강목교수 이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탁영은 당대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훈구파와 정치적 이념과 역사 의식을 달리했던 소위 士林의 일원이다. 사림은 왕조교체기에 정권에 참여 하지 않고 향촌에 머물면서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던 사대부 집단을 지칭하던 말이었다. 이후 김종직이 왕에 의해 중용되고 그 문도들이 문관 급제자로 출사하면서 차츰 정치적 실체를 보이기 시작하자 이들을 포괄하여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뫼黨’이라고 할 만큼 뚜렷한 동류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주로 언관에 진출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성종대는 사림이 사실상 그때까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훈구파에 대해 실질적인 대항 세력이 된 때라고 할 수 있다.

탁영이 출사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기는 달리 말하면, 사림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학문적 성향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때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탁영은 상대적으로 詞章에 경사되었고, 적극적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하였다. 즉, 그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고, 이를 시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인물인 것이다. 그의 문필 작품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탁영은 文에 특히 능하였다. 『명종실록』에는 조종조 이래 詩에 능한 자가 누구냐는 왕의 물음에 대해, 학문이 정밀하고 詩와 文이 모두 뛰어난 김종직 이후 文으로는 김일손에 비할 자가 드물다는 정유길의 답이 실려 있다.¹⁾ 송계 권응인도 그의 『송계만록』에서 “김탁영선생은 문장으로 이름이 났다. 남지정이 항상 말하기를 읍취현의 시와 탁영의 문은 절등하다고

1) 『明宗實錄』卷28, 17年 2月 己卯 “又問曰 我國祖宗朝以來 能詩者 何人耶 天民曰 金宗直是也 惟吉曰 宗直學問精微 詩文皆善 宗直之後 李苻之詩善矣 朴聞之詩 金駟孫之文 亦罕有其比也”

할만하다고 하였다. 그 문집이 세상에 성행하기는 하나 시는 전하는 것이 드물다.”라고 하였다.²⁾ 『속동문선』에는 여러 문체에 걸친 그의 작품이 收載되었는데, 시는 없고 賦 3편, 辭 1편, 銘 1편, 記 5편, 序 4편, 祭文 2편, 墓誌 2편, 錄 1편이 있다. 탁영의 文에 대한 후인의 평가가 각별했음을 이로써도 짐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탁영의 樓亭記이다. 그의 문집에는 10편의 記文이 실려 있는데 이중 누정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癡軒記>, <涵虛亭記>, <二樂樓記>, <臨錦堂記>, <梅月樓記>, <釣賢堂記>의 여섯 편이다.³⁾ 누정기는 산수유기와 함께 다른 유형의 기문에 비해 문학성이 두드러지고 작가의 주제의식이 뚜렷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즉 탁영의 산문문학적 성취를 확인하고, 당대 新進士林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을 살피는 데 누정기는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記와 樓亭記

누정기는 한문문체의 하나인 ‘記’에 속한다. 記는 산수유람과 같은 어떤 사건, 書畫 등과 같은 어떤 사물, 또는 여러 형태·용도를 지닌 건축물 등을 소재로 하는 산문 형식의 글이다.⁴⁾ 누정은 대개 경관이 수려한 곳에

2) 權應仁, 『松溪漫錄』 “金濯纓先生 以文章自名 南止亭常稱曰 挹翠軒之詩 濯纓之文 可謂絕等 其文集盛行于世 而詩則罕傳”

3) 탁영의 작품 중 산수유기인 <속두류록>은 본 논의에서 제외한다. 조선조 문인들은 유기를 기체와 구별되는 문체양식으로 이해한 것 같다. 물론 제명도 ‘-기’가 아니라 ‘-록’인 경우가 많다. 탁영 문집에서도 다른 기문이 ‘기’ 항목에 편차되어 있는 반면 <속두류록>은 ‘록’ 항목에 편차되어 있다.

4) 金貞仁은 記文을 淸 姚鼐의 분류를 참고하여 1. 山水, 山水遊記類, 2. 樓亭記類, 3. 官廡, 公廳記類, 4. 鄉校, 書院記類, 5. 기타류로 나누고 있다.(金貞仁, 『朝鮮中期士林의 記文研究』, 국학자료원, 2003, 49쪽)

위치하면서, 사면이 개방되어 四圍를 조망할 수 있는 형태를 지닌 전통적 건축 양식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樓(樓臺)는 주로 공적 목적에서 건립되며, 亭(亭子)은 사적 용도로 지어지는데, 여기에 堂, 齋, 榭 등 같은 목적을 지닌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도 누정의 범주로 넣는다.⁵⁾ 따라서 누정기는 누정을 소재로 한 記文이라고 할 수 있다.

금석예에서 “記라는 것은 일을 기록하는 문이다”라고 하였다. 서산이 말하기를 “기는 일을 잘 서술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우공 고명이 곧 기의 처음이다. 뒷사람이 기를 지으매, 의론을 섞어 넣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후산이 또 말하기를 “한퇴지가 기를 지으니 그 일을 기록할 따름이었다. 지금의 기는 곧 論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적이 고찰하기는, 기의 이름은 『대기』 <학기> 등의 편에서 시작되었다. 기의 문은 『문선』에 실리지 않았다. 후대의 작자 중에서 한퇴지의 화기, 유자후의 유산기를 정체로 삼는다. 그러나 한퇴지의 <연회정기>는 역시 그 중에 의론을 조금 실었다. 유자후의 記인 신당철로보에는 의론의 말이 많다. 구양수, 소식 이후에는 오로지 의론으로 기문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후산 등 대가들이 여기에 대해 말하였다. 대개 기는 잊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영하고 세우는 것을 기록하고, 달과 날짜의 오래고 가까운 것과, 공사 비용의 많고 적음, 주인의 성명을 기록한다. 일을 기록한 후 대략 의론을 지어 마무리하는데, 이것이 정체가 된다. 그러나 범문 정공이 업사를 기록한 것, 구양문충공이 화금당을 기록한 것, 소동파가 산반장서를 기록한 것, 장문잠이 진학재의 기문을 지은 것, 회옹이 <무원서각기>를 지은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오로지 의론을 숭상하기는 하나, 그러나 그 말이 죽히 세상에 드리워 가르침을 세우니, 그 체제의 변함이 해되는 것은 아니다.⁶⁾

5) 김동준, 『16세기 누정한시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5쪽.

6) 金石例云 記者記事文也 西山曰 記以善敘事爲主 禹貢顧命 乃記之祖 後人作記 未免雜以議論 后山亦曰 退之作記 記其事耳 今之記乃論也 竊嘗考之 記之名 始於戴記學記等篇 記之文 文選弗載 後之作者 固以韓退之畫記 柳子厚遊山記 爲體之正 然觀韓之燕喜亭記 亦微載議論於中 至柳之記新堂鐵爐步 則議論之辭多矣 迨至

위는 ‘記’에 대한 설명으로서 明 吳訥의 『文章辯體』에 나오는 내용이다. 記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는 『예기』의 별칭인 『대기』와 『예기』의 일 편명인 <학기>가 처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서산의 말을 인용하여, 기가 ‘일을 기록하는 문’이라는 점에서 그 최초 작품으로 『서경』 중의 <우공>과 <고명>을 들고 있다. <우공>은禹가 다스린 아홉 주의 지리적 상황을 기술한 것이고, <고명>은 죽음을 앞 둔 成王이 召公과 畢公에게 명한 내용으로, 그가 죽은 후 빈소를 차리는 방법과 嗣王인 康王이 位에 오를 때 치르는 의식의 내용과 절차를 기술한 것이다. 두 편 모두 記者의 개인적 생각은 개입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하여 시종 객관적인 진술로 일관하는 특징을 지닌다. 사실기록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형식을 갖춘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은 <우공> 등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후대의 기 작품으로 韓愈의 화기, 유종원의 유산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 그것을 그는 기의 ‘正體’라고 하였다.

즉 기의 정체는, 소재가 되는 事象에 대한 비망기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유지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은 정체 기문의 내용에 대해 건물 修造記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건물 주위에 園囿를 조성하고 건물을 수조하는 과정, 공역에 드는 인원이나 비용, 건물이 소재한 지역의 관리나 건물주에 대한 사항 등을 기록하고, 간단하게 작자의 의론을 덧붙이는 것이라 하였다.

사실 기록을 위주로 하는 정체에 비해서 기의 ‘變體’는 의론이 전체 구성에서 그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인용에서 보듯이 사실

歐蘇而後 始專有以議論爲記者宜乎 后山諸老 以是爲言也 大抵記者 蓋所以備不忘 如記營建 當記月日之久近 工費之多少 主佐之姓名 敘事之後 略作議論以結之 此爲正體 至若范文正公之記嚴祠 歐陽文忠公之記畫錦堂 蘇東坡之記山房藏書 張文潛之記進學齋 晦翁之作整源書閣記 雖專尙議論 然其言足以垂世而立教 弗害其爲體之變也(吳訥, 『文章辯體』).

기록의 뒤에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간단한 작가의 의론이 덧붙여진 것까지 변체라고 하지 않고 있다. 변체의 기를 論이라고 한 것처럼, 기문 중의 의론이 어떤 주제에 관한 입론과 논리 전개 of 구성을 갖춘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한유의 『연회정기』는 이미 그러한 성향을 보인 작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구양수, 소식 등의 기문은 아예 의론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변체의 전형적인 예로 들은 것들이다.⁷⁾

그러나 실상, 기문을 정체와 변체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기가 정형화된 한문문체로 지어진 것은 唐의 문장가에 의해서이다. 작품의 시원으로 든 『우공』 등의 기사자가 記 文體에 대한 인식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고, 뒷사람이 사실 기록이라는 특성을 따져 기원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일 따름이다. 기는 그것이 처음으로 정형화된 문장양식으로 인식된 한유 시대에 이미 기록성을 탈피하여 문예적 완성도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지어졌다.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라면 보고문으로서의 가치는 지닐 수 있을지 모르나 문예미를 논할 바는 못될 것이다. 그래서 문체양식으로서의 기의 정형은, 오히려 의론이 끼어 든 구성, 즉 前敍事와 後議論의 두 서사단락을 지닌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의론이 보태지면서 단순한 기록을 목적으로 한 문체양식에서 작가의 뚜렷한 주제의식이 개입되게 되고, 또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구성상의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적절한 언어의 운용, 효과적인 문장표현 등의 수사미학적 기교가 더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가 비망기적 기록서사의 범주를 벗어난, 작가의식이 반영된 문

7) 정체, 변체에 대해서는 徐師曾, 『文體明辯』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오늘의 기록을 참고한 듯하다. ‘按金石例云 記者紀事之文也 禹貢顧命 乃記之祖 而記之名則昉於戴記學記諸篇 厥後揚雄作蜀記 而文選不例其類 劉勰不著其說 則知漢魏以前作者尙少 其盛自唐始也 其文以敍事爲主 後人不知其體 顧以議論雜之 故陳師道云 韓退之作記其事耳 今之記 乃論也 盖亦有感於此矣 然觀喜宴亭記 已涉議論而歐蘇以下議論寢多 則記體之變 豈一朝一夕之故哉.’

예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을 의론의 개입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의론과는 별개로 서사부분의 특정 서사단락을 자의로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예 미학적 성취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⁸⁾ 한유의 <등왕각신수기>에서 의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 여기에서는 기를 청탁받기 전 작가가 여러 차례 등왕각을 방문하고자 했던 내용이 전반부의 구성을 이룬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작가 자신의 정치적 굴곡과 거기에 담긴 내면의 정서를 은연 중 流露시킴으로써 단순한 사실 기록을 넘어서는 성과를 얻고 있다.

누정기 역시 前敘事, 後議論의 구성방식이 정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기록의 측면에서 보면, 누정기문에서 기록 서사를 이루는 부분의 구성요소는 위 오늘의 설명과 같이 누정 주변의 지리적 환경, 개보수의 연혁, 인력동원 방식 등 건축물과 관련된 직, 간접적 내용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록하여 남기고자 하는 사실정보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내용을 중국의 기문과 우리의 것을 종합하여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1. 누정소재 지역의 지리적 특징, 역사, 인물
2. 누정주변의 승경, 누정에서 조망한 경관
3. 누정의 개보수, 중건, 수조의 필요성
4. 누정 공정의 연혁
5. 누정의 형태, 제도, 園囿의 실경
6. 누정 제명의 유래
7. 기문 청탁(저작)의 과정
8. 누정 명어의 典故, 語義

8) 尹采根은 양식적 정형성을 벗어난 누정기에 대하여 逸話型, 議論型, 史筆型, 寫景型의 네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윤채근, 「조선전기 누정기의 사적 개관과 16세기의 변모 양상」, 『어문논집』 35(안암어문학회, 1996), 521쪽.

9. 누정주와 기사자와의 인연, 교유

10. 누정주(지방관)에 대한 칭상, 권면, 감계

누정기에서는 위 내용요소들이 적절히 결합되어 전체의 서사단락을 형성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셋, 서넛 또는 그 이상의 단락요소가 기문의 구성을 이룬다.⁹⁾ 그러나 그 단락요소가 늘어가면 기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기록 위주의 보고문 형식이 되어 문예물로서의 가치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 두 요소로만으로 전체 구성을 이루는 경우도 흔하다. 『동문선』에 수재된 고려조와 조선 초기의 기문들은 위 단락요소 중에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 둘, 또는 몇 개 이하의 소재를 중심으로 기술될 때 주제의 일관성이 서고 수사적 표현도 풍부해 지는 것은 당연하다. 『동문선』 편집자가 문집에 실린 것이나 누정에 揭板된 기문에서 문예적 가치가 높은 것을 가려 뽑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누정기가 공해기나 학기 등과 달리, 건축물 소재의 기문 중에서도 특별히 문예 미학적 성취가 높은 것은 누정이 지니는 기본적인 성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누정은 위치, 용도, 명의 등에서 다른 건축양식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이는 단순히 기술대상으로서 소재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이 기문의 구성이나 문장기술의 표현 방식에 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만큼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몇 가지로 보면 다음과 같다.

누정은 그 쓰임의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는 서원이나 학교, 사당 또는

9) 참고로, 金銀美는 조선 초기 누정기 210편을 분석하여 서술유형을 추출하였다. 여기에서 누정기문의 서술유형을 크게 서사체와 의론체로 나누고, 다시 서사체를 敘景(形勝-地形, 勝景; 樓亭-外觀, 製圖)과 敘事(樓亭의 흥폐의 역사, 공역의 전말 등)로 구분하였고, 의론체를 누정의 名義 효용성, 修造의 功德으로 구분하였다.(金銀美, 『朝鮮初期 樓亭記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35쪽)

공해류 건축물과 달리 그 용도가 다양한 편이다. 우선, 누정은 시정의 번잡을 피해 온 시인묵객이나 王使의 노고를 잠시 풀려는 관리 등이 주변의 경치를 완상하면서 사색과 유한을 즐기기도 하고, 주연이나 시회를 열어 풍류를 일삼는 장소로 이용된다. 또는 유교경전의 강학과 예의와 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대부 간의 계회나 향시 등 시험을 위한 장소로도 이용되었다.¹⁰⁾ 그러나 그 근본을 따져보면 역시 자연을 즐기고 풍류를 일삼는 것과 같이 다소 유희적이고 낭만적인 데 그 주된 쓰임이 있다. 이처럼, 누정이 법도나 예식에 매인 경직된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심미감을 자극하는 장소인 점은 작가의 작의에 무의식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누정기 작자는 자연히 그 언어의 운용이나 표현, 또는 구성방식에 있어 문예미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예미를 높이려는 작가의 의도는, 특히 누정이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는 점과 어울려 자연경물의 묘사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작가의 심미적 의도가 자연 경물의 묘사에 집중되는 경우 기문의 서사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누정기 외 다른 건축물의 기문에서도 주변 지역의 지리적 상황이 소개된다. 그러나 대개 보고형식을 취하거나 실경 위주의 사실설명에 그친다. 그리고 전체 기문에 비해 서사양도 많지 않다. 그러나 누정기에서는 주변 경물을 가능하면 아름답고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연히 서사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누정기에서 기술되는 경물은 서사세계 내 서술자의 시점을 중심으로 대개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누정에 이르는 道程에서 포착되는 산수이다. 두 번

10) 좀 더 자세히 보면, 누정은 遊興賞景의 空間, 樓亭題詠을 위한 詩壇, 學問修養과 人倫講學의 空間, 지역사회의 공동공간, 활터, 고을과 변방어귀의 門樓와 城樓, 使臣의 객관과 휴식소의 공간으로서의 별장 등의 용도를 지닌다고 하였다.(이강로·장덕순,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 시인사, 1987, 24쪽)

째는 누정의 바깥에서 누정이 위치한 곳으로 집중되는 시선에서 잡을 수 있는 대상물 즉, 누정의 건물 그 자체와 그를 포함하는 園圃이다. 다음은 누정에 시점을 고정시키고 바깥쪽으로 바라보는 경관이다. 작가에 따라서 한두 방식을 택하거나 또는 세 방식 모두를 택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누정 기에는 경물 묘사가 전반부 기술서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작품에서는 그 내용이 더욱 확장되어 기문의 전체 주제의식이 여기에 집중될 때도 있는 것이다.

누정기문에서 樓亭名도 기문 양식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 대개 향교나 학교와 같은 건물의 당호는 그 건축물의 목적만을 표시한다. 그래서 기문의 제명도 지명의 뒤에 ‘--사당기’ ‘--현관기’처럼 된다. 그러나 누정의 경우는 다양한 함의를 지닌 이름을 따로 붙인다. 따라서 기문에서는 名義의 典故를 찾고 語義를 따지며, 명義와 누정주인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등의 내용 등이 기문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명義의 뜻을 입론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논리적 기술을 해나가는 ‘論’ 형식의 서술이 가능하게 되고, 이 내용들이 구성상 소위 의론부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기문의 청탁과 수락의 과정도 누정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한문 문체 중에서 글의 청탁을 받고 그 과정을 기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누정기문의 청탁은 역시 누정의 고유한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누정은 공관에 부속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비록 그것이 한 개인의 소유지 위에 건립된다 하더라도 지방관이나 누정주인의 전용공간이 될 수는 없다. 누정은 어떤 목적으로든 관리나 주인이 다른 사람들과 회합,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기문을 직접 짓지 않고 文名이 높은 다른 사람에게 청탁한다는 것은 그 공간을 공용공간으로서 知人들에게 선포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누정의 수조가 한갓 풍류환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비의 격조 높은 취향을 누리고자 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¹¹⁾ 대개 누정주인과의 여러 인연으로 해서 기문 저작 요청을 뿌리칠 수 없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작자에 대한 간곡하고도 절실한 소청의 과정을 상당히 길게 소개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정 기문이 청탁을 받아 짓는 것 때문에 그 내용에서 누정주에 관련된 칭상이나 권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누정기는 사실정보를 의도에 따라 연번시키고, 그 문장기술이나 표현방식을 다양하고 적의하게 하는 등으로 작가적 개성의 개입을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문체양식이다. 이런 문예적 작의 외에, 또 이는 입론을 중심으로 한 논리 전개에서 작가가 지닌 사유의 일단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킬 수도 있다. 누정기의 이해는 이런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서 그 성과가 드러날 것이다.

3. 記述 方式과 構成的 特性

탁영의 누정기는 전체적으로 前敍事 後議論의 누정기 일반 구성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각 단락이 차지하는 서사의 장단은 작품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치헌기>는 기문청탁의 사정을 간단히 기술하고 누정에 命名 한 후 곧 그 名義를 해석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서사부분은 매우 축소되고 거의 의론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이다. <함허정기>, <이요루기>, <임금당기>, <매월루기>는 누정에 이르게 된 연고나 주변의 경관 묘사 등으로 이루어진 서사부분이 의론부분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작품들이다. 그러나 <조현당기>는 누정에 이르는 도정이나 누정을 끼고 있는 주변 園囿에 대한 묘사, 누정주와의 교유 등의 서사부분이 의론보다 확장

11) 물론 작자의 입장에서는 보면, 작가 자신의 문제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음을 은근히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할 것이다.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누정기에서 경물의 묘사는 기문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시야에 포착되는 物象에서 기술 대상을 선정하는 것부터 이를 적절한 언어표현과 수사로 그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아가, 단순히 가시적인 물상을 유려하게 그려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를 통해 인간의 문제까지 통찰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물에 대한 탁영의 기술방식은 이미 그의 산수유록 작품인 <속두류록>에서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그는 유려한 언어적 형상미보다는 자연 경물과 인문적 사상을 진지하게 성찰함으로써 이를 내면의 지적 인식과 적의하게 조응시키는 방식을 보여주었다.¹²⁾ 의론으로만 이루어진 <치현기>를 제외한 그의 나머지 누정기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그 한 예이다.

이 누각의 북쪽 과사탑의 남쪽에 네모진 못을 파고 호계의 물을 끌어서 두르고 가도를 물 가운데 쌓아서 점대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지어 띠풀을 덮어 정자를 지었다. 물을 가로질러 다리를 놓고 고기와 연을 기르고 물새, 오리와 해오라기 등을 풀어 떠다니게 하였다. 작은 배에 기녀와 악공을 싣고 물 가운데서 뱃노래를 부르며 능파의 가사를 지었다. 최후가 늘 빈객을 맞이하여 기쁘게 술을 마시면서 수레를 멈추게 하면 사람들은 그를 마치 수선으로 여겼다. 거울같이 맑은 수면이 잔잔하게 일렁이니 누대와 성곽, 봉우리와 수목, 해와 별 구름이 그 가운데 거꾸로 비쳐 잠기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크기는 반이랑이나 물이 고여 일렁이며 태허를 안았다.¹³⁾

12) 문범두, 『濯纓 金駟孫의 續頭流錄 攷』, 『韓民族語文學』 제51집(韓民族語文學會, 2007), 443쪽.

13) 直樓之北 娑娑塔之南 鑿方塘 引虎溪之水而匯之 築假島於波心 以爲漸臺 架屋其上 棲茅而亭之 橫波設略約 種魚種蓮 羅水禽鳧鷖鳩鵲之類 而對浮沈焉 以小舳載妓樂 中流棹歌 作凌波之辭 侯常邀賓客 燕飲而投轄焉 人視之若水仙然 鏡面澄澄 平凝漫皴 樓觀城郭 峯巒樹木 日星雲物 莫不倒影於其中而蘊焉 其大半畝而停瀟濱

<함허정기>의 한 부분이다. 누각을 수조하고 원유를 조성한 후, 연을 심고 새를 기르며 또 거기에서 풍류를 즐기는 누정주의 모습을 그렸다. 누정수조로부터 누정주의 이용에까지 서사세계 내의 긴 시간을 몇 줄로 압축 하면서도 인공구조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한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한 점이 예사롭지 않다. 그러면서 탁영은 가시적인 물상의 묘사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즉 ‘涵混太虛’라 하여 시각적 대상을 우주적 시공에 대응시킴으로써 본체론적 사유에까지 서술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문의 서사부분은 기록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탁영의 누정기문에서는 누정이 소재한 지역의 설명이나 누정 수조의 시말 등과 같은 사실보고형 서사는 매우 축소되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물 묘사가 많은 서사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탁영 누정기에서 이 경물묘사 부분은 다소 특징적인 면이 있다.

중원으로부터 동으로 행하여 죽령을 향하면 그 사이 산수 중에 즐길만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황강·수산의 두 역을 지나 청풍경까지 가서 재 하나를 넘어 단양 땅으로 들어가면 장회원에 이른다. 그 아래에서 말고삐를 잡으면 점점 아름다운 경치 속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우뚝 솟은 층층바위가 보인다. 꼭대기에 푸른 기운이 쌓여 사방을 분간할 수 없으니 비록 교력(氣象에 능한 자)과 같은 자라도 어찌 할 수 없을 것이다. 언덕이 열리고 계곡이 터지면 한 줄기 강물이 가운데로 흐르는데, 푸른빛이 일었다. 강 북쪽 언덕 옆의 깎아지른 절벽 위 수 백보 떨어진 곳에 성이 있어 숨을 만한테 옛 이름이 가은암이다. 내가 그 앞에 말을 세우니 안개가 자욱하여 아득히 신선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뛰어난 경치가 이름이 없는 것을 애석히 여겨 이름을 붙여 ‘단병협’이라 하였다. 계곡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면 산이 더욱 기이하고 물은 더욱 맑았다. 십리를 가면 계곡이 다하는데, 머리를 돌려 뒤로 보는 것이 마치 정다운 사람과 이별하는 듯하여 열 걸음에 아홉 번이나 돌아보았다.¹⁴⁾

漾 涵混太虛(함허정기).

<이요루기>의 앞 서사부분이다. 죽령으로부터 황강, 수산을 지나고, 그리고 청풍경에서 재를 넘어 단양으로 들어간다. 가은암에서 말을 세우고 주변의 풍광을 감상한 후, 여기에 이름이 없음을 애석하게 여겨 ‘단병협’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경치에 이끌려 情人과 이별하듯 여러 번 뒤돌아보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탁영 누정기의 서사부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작가 자신이 서술의 주체가 되어 누정에 이르게 된 연고나, 기문 청탁 시기의 일상 그리고 누정에 이르는 도정의 승경을 묘사하고 있는 점이다. 즉 고정된 시점에서 가시권에 들어오는 물상을 수동적으로 포착하여 기술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있다. 서술자가 시점을 옮겨가면서 기술하는 방식은 산수유기체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작품 내에 작가 자신의 정서적 개입을 용이하게 한다. 기문 중에서는 한유의 <회연정기>나 <신수등왕각기>에 역시 이러한 기술 방식이 쓰였다. 한유를 특별히 추종했던 탁영이 그 기술 태도를 자신의 방식으로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탁영의 이러한 기술방식은 사림으로서의 자연인식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림 출신들은 특별히 遊山을 즐겨하고 또 그들 중에 산수유록을 남긴 인물이 많았다. 사림에게 있어서 자연은 탐닉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을 경험한다는 것은 유가의 가르침, 특히 사림이 지향하는 이념의 일단을 실천적으로 체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자연은 物我를 객관에서 성찰함으로써 내척을 다지는 수양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연의 질서를 통해 인간 내면의 조화를 찾으려 했던 성리학적 사유태도는 자연의

14) 自中原東行 向竹嶺 其間山水之可樂者不一 過黃江壽山兩驛 行盡清風境 踰一站入丹陽界 得長會院 按轡其下 漸入佳境 忽見積石斗起 攢峯疊翠 迷左右眩東西 雖巧曆莫能較也 岸開峽坼 一江中注 溶漾藍碧 江北岸側之絕險 上數百步 有城可隱 舊名可隱巖 余立馬其前 烟霧路迷 依稀然有爛柯之想 惜絕境之無稱 肇名之曰 丹兵峽 由峽而東 山益奇 水益清 行十里峽盡 迴首如別佳人 十步九顧(이요루기).

경험하는 행위를 곧 심성수양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자연의 탐구는 그 자체가 학문적 탐구 방식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자연은 세속과 가장 대립되는 원시적 공간임으로 해서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이나 우주적 근원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철학적 사변의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수목과 산천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그 자체가 인간이 추구하는 도의 본체를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⁵⁾

경물 서사부분에서 누정을 자연 속에 그저 있는 대상물이 아니라 스스로 애써 찾는 수고를 겪은 후에 도달하는 곳으로 그린 것은, 사람으로서 지니고 있는 탁영의 이상과 같은 자연인식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누정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한 유희의 장소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이념적 지향이 응집되고 귀결된 지점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정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차원의 성찰의 공간이 되는 셈이다.

<조현당기>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의 의론부분은 명의를 해석하는 등으로 입론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함허정기>는 이 누각이 위치한 김해의 호계변 주변 물상을 그려내는 전반부와, ‘함허’라는 명명의 의미를 찾고 이를 누정의 경영주인 부사의 정치 행위에 부치는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요루기>는 단양 남천변의 누각으로 전반부에는 누를 찾아가는 과정을 기술하였고, 역시 仁者樂山 智者樂水에서 빌어온 ‘二樂’의 뜻을 해석하는 것으로 의론부를 구성하였다. <임금당기>는 함허정과 같은 호계변에 위치한 누각인 임금당 주변의 물상을 그려내었다. 이 작품의 경우는 일반론을 누명과 관련짓지 않고, 누각과 그것을 수조한 사람이 서로 어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논지를 세웠다.

15) 문범두, 앞의 논문, 443-444쪽 참조

<매월루기>는 전반부에 작자가 누대가 있는 합천을 가고자 했으나 불우를 겪어 그렇지 못했다는 내용과, 이어 매월에 관련한 의론으로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다.

누정기에서 語義를 해석하고 典故를 찾고, 그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의론의 전형적인 구성방식이다. 그런데 탁영이 의론을 전개하는 방식은 나름의 특성을 지닌다. 다음을 보자.

가>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만물은 반드시 더불어 서로 어울림이 있다. 어울림을 얻지 못하면 조물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¹⁶⁾

나> 내가 공을 살펴보니, 은근히 옹표의 자질이 있으니 일찍이 활을 잘 쏘았다. 그 국량이 호걸 장성이 될 수 있었는데 굽혀서 이 부의 수령이 되니 역시 천명이다. 戰場의 대장군도 공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나, 官府의 민생도 공이 역시 능하지 못함이 없다. 어찌 일을 따라 능히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¹⁷⁾

위 인용문은 <임금당기>의 내용이다. 가>에서는, 기문의 소재가 된 임금당으로 해서 물길인 호계와 누각이 서로 잘 어울리게 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모든 만물에 어울림이 중요함을 의론의 전제로 세웠다. 그리고 나>에서, 김해부 수령의 자질이 호걸 장성에도 미칠 바이지만 굽혀서 이곳의 수령이 됨도 역시 어울린다는 것으로 칭상의 변을 부쳤다. 즉 입론과 누정주에 대한 칭상이 인과적인 연결성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탁영 누정기에서 특기할 사실은 누정주인이나 누정에 관계한 지방관에 대한 칭상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론을 바탕으로 누정주에 대한 칭상에서 권면과 감계를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탁

16) 天壤間 凡物 必有與物相稱 不得稱則不得造物之情矣.

17) 吾觀公偃然熊豹之姿 早穿楊葉 其有幹局 有豪傑長城之望 屈而爲此府 亦天也 高牙大纛 乃公之能事 而簿書米鹽 公亦無不能也 其非隨事能稱者乎.

영 이전의 누정기문에서 누정주에 대한 칭상을 넘어 설정된 유학적 입론에 따라 권계까지 표현한 예를 쉽게 찾을 수 없다.

가> 물의 성질은 두루 흘러 막힘이 없으나, 그 본체는 원래 허하였다.¹⁸⁾

나> 어공이 명명한 것이 이에 비로소 알맞고, 최후가 이를 즐기니 역시 그 특별한 부류임을 알 수 있다.¹⁹⁾

다> 청하건대, 최후는 말없이 앉아서 정관하여,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생각을 맑게 하여 본체의 허함을 구한다면, 조금의 찌꺼기라도 능히 자신의 흉금을 더럽힐 수 없을 것이오.²⁰⁾

<합허정기>의 내용이다. 가>는 물의 일반적 성질을 성리학적 이해방식으로 입론으로 삼은 부분이다. 나>는 일반론을 기초로 최후를 덕목을 여기에 비겨 칭상한 부분이다. 다>는 권계를 더하는 부분이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입론-칭상-권계의 구성방식이 드러난다.

<치헌기>의 경우는 의론부의 서사양이 다른 작품에 비해 많은 만큼 이러한 구성 방식이 비교적 뚜렷한 양상을 보인다. 權景裕(字: 子汎)가 체천 현감이 되어 객사의 서편에 헌함을 새로 경영하고는 탁영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작품의 첫머리에는 탁영 자신이 누정을 ‘癡軒’으로 명명하고 ‘癡(어리석음)’의 어의와 전고를 살폈다. 그리고는 누정주(권자범) 역시 ‘치’한 자로서, 세인들은 아침하나 주인은 홀로 그 행동이 어리석어 남에게 미움을 내게 하고, 또 세인은 진취에 교묘하나, 주인은 청반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지방의 감사가 되었으니 이는 벼슬에 어리석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등으로 누정주를 평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치’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해석하

18) 水性周流無滯 而體則本虛.

19) 魚公之命名 於是爲稱 而崔侯樂之 亦知其非常流也.

20) 請 侯默坐靜觀 澄其心 清其慮 以求本體之虛 些少查滓 不能累吾之胸次.

여 주인의 덕목을 稱賞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장차 어리석음을 지켜 이 몸을 마칠 것이다’라고 하자 서술자는 다시 어리석음을 극복한 사람의 예를 들어 어리석음에 얽매어 융통성이 없는 경우를 경계한다. 누정주인 자범으로 하여금 결국 ‘大中’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최상이라는 결론으로 이르게끔 하는 것으로 내용을 맺고 있다. 처음 ‘치’에 대한 전고를 살펴 일반적 의미를 끌어내고 누정주를 거기에 비견하여 칭상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누정주의 공감을 유도하면서 다시 한번 역설적 어법을 동원하여 ‘치’에 고착하여 융통성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상 탁영 누정기에서, 의론부분에서의 진술의 구성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누각의 이름이나, 누각의 위치 등으로부터 일반원리를 세우고, 이를 누정주인의 실제 삶이나 치리 행위에 비겨 칭상하는 것이다. 또는 더 나아가 입론-칭상-권계의 서사구조를 이루게 함으로써 구성상의 통일성을 꾀하고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약간의 변용이 있다고 하나 그의 모든 누정기문에 적용된다. 물론 탁영 외 다른 작가의 기문에서도 누정주인이나 누정 수조나, 개보수에 관여한 지방목민관의 정치적 업적을 기리는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누정주에 대한 일방적인 칭상에 그치고, 입론과 칭상이 유기적 인과로 구성된 경우는 드물다. 탁영의 경우는 그 서사의 과정이 연역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논증 형식으로 이루어져 독자로 하여금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탁영 누정기에서의 이런 구성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우선 첫째는 입론으로 삼은 유학적 이념이 공소한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인의 행위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인다. 실현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념이라면 설득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에, 단순히 칭상만 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어떤 근거에 바탕을 두는 것인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자칫 실상을 넘은 과도한 찬사나 다른 목적을 숨긴 阿諛과 같은 행위로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계는 또 이런 점에서 칭상 일변도의 구성이 지닌 수 있는 문제를 불식시킬 뿐더러, 입론에서 보여주었던 유학적 이념을 누정주인 개인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인 문제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다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4. 士林 精神의 形象化

탁영의 문학에 대한 견해는 다음의 글에서 볼 수 있다.

내가 처음 서울에 도착하여 嚮之가 근래 읊은 시를 구하다가 『관동행록』을 얻어 읽어보았다. 아! 이 책이 어찌 단지 '詩觀' 뿐이겠는가? (그는)외풍이 직책을 흔들 때는 국법을 고집하여 동요되지 않고, 아버이 그리는 정이 간절하나 (나라일로) 봉양할 틈이 없었다. 그 흥을 붙이고 생각을 끌어낸 것이 강개 격절함이 아님이 없었으며, 옛 사람의 나라를 생각하고 아버이를 그리는 마음이 많았으니, 조금도 烟月을 희롱하는 것을 다루지 않았다. 향지의 평생 충효의 양단이 성정에 발한 것을 이 책에서 가히 찾을 수 있는 것이니 어찌 시관뿐이겠는가? 세상에는 使命을 빌어 (개인의) 마음 속 감정을 드러내고, 높은 관직에 올라도 아버이의 봉양을 잊는 자가 있으니 향지가 그들을 보기를 반드시 개와 돼지로 여길 뿐이 아니었다. …… 무릇 詞章은 말기이다. 그러나 도를 지닌 사람은 반드시 말이 있으니, 말의 精髓로서 사람에게 감발한 것이 시가 된다. 그런 즉 사장은 역시 도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²¹⁾

21) 余始到京師 求嚮之近所吟詠者 得關東行錄而讀之 噫 斯錄也 豈但詩觀乎哉 風振乘驄 執法而不撓 情切陟岵 將父而未違 其所寓興抽思 無非慷慨激切 多古人埋朱輪望白雲之懷 而不少以嘲弄烟月爲事 嚮之平生忠孝兩端發於性情者 於斯錄可掬其但詩觀乎哉 世有假使命而行胸臆 躋膺仕而忘親養者 嚮之視之 必不啻狗彘矣…… 若夫詞章 特末矣 然有道者必有言 言之精而有以感發乎人者爲詩 則詞章亦非與道背馳者也(『濯纓集』卷一, <題權睡軒關東錄後>)

위는 睡軒 權五福의 시집인 『關東錄』에 부친 글이다. 여기서 탁영은 수현의 시를 평하면서 그의 문학에 대한 이해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詩觀’이라 한 것은 눈으로 관찰한 事象을 시로 읊은 것으로서 ‘嘲弄烟月’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수현은 그렇지 않고 충효의 양단이 성정에 발한 것을 시로 썼다고 하였다. 즉 탁영은 시가 단순히 자연을 읊고 私的 감정을 유로시키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道’가 말의 정수를 빌어 사람에게 감발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詞章은 비록 말기이지마는 도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는 탁영의 시에 관한 견해이지마는 실제로는 시문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학적 이해방식은 그의 누정기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그는 의론부의 입론을 유학적 의미체계로 접근시키려는 의도를 뚜렷이 드러낸다. 즉 ‘도’를 실으려는 작가의식의 개입이다.

물의 성질은 두루 흘러 막힘이 없으나, 그 근본은 애초에 虛한 것이다. 허하므로 능히 사물을 잠기게 할 수 있다. 만일 홍수의 탁류가 일 때, 물길 가운데의 뜬 풀 더미나 나뭇가지는 그 본성을 저해하는 것이니, 어찌 능히 넉넉하게 사물을 잠기게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사람의 마음은 쓰면 움직여 무궁하나, 그 본체는 고요하여 근본이 허한 것이다. 허하기 때문에 오덕을 갖추고 만물을 구비하는 것이다. 천지일월은 모두 나의 마음 가운데 물건이다. 만약 마음 가운데 사특한 것이 있다면 본체의 허함을 잃어 만사의 쓰임이 어그러지고 마음에 응하며 정사에 드러나 썩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²²⁾

오직 어진 사람이 된 후에 능히 산을 즐기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이 된 후에

22) 水性周流無滯 而體則本虛 虛故能涵物 一有潢潦濁流 浮莛漂梗於其流而沮其性 則安能涵得如許哉 夫人之一心 用則動而無窮 體則靜而本虛 虛故具五德而備萬物 天地日月 皆吾方寸之物也 一有邪思于其方寸 則失本體之虛 而爽萬事之用 應乎心而達乎政 莫非汚下矣(합허정기).

능히 물을 즐긴다 하였다. 석 달 동안을 인을 어김이 없는 자라야 거의 인에 가깝다는 것은 백세 후에도 가히 알 수 있다. 지혜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한갓 산수에 정을 부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에 가깝지 않았는가? 무릇 사람이 인과 지의 본성을 구비하지 않음이 없으나 인과 지의 단서를 채우는 사람은 드물다. 인과 지를 채우는 것은 나의 분수 밖의 물건이 아니다. 산의 고요함을 체득하여 옮기지 않으며, 물의 움직임을 체득하여 막히지 않아, 일심의 덕을 안정시키고 만물을 변화를 두루 살핀 즉 인과 지 둘의 진정한 즐거움을 내 능히 결합 수 있을 것이다. 23)

위에서 첫째 것은 <함허정기> 의론부분의 내용이다. 누정명에서 ‘함’과 ‘허’를 자연의 이치에 비기면서 자연이 그러하듯 마음에 사특함이 쌓이면 본심도 잃을뿐더러 정사도 그르칠 수 있다는 유학의 심성론을 의론의 전제로 세웠다. 두 번째 것은 <이요루기>에서 인용한 것이다. 역시 의론에서 입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누명이 『논어』에서 빌어온 것임은 이미 보았다. 그런데 탁영은 산수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한갓 아름다운 자연에만 마음을 붙이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玩物喪志에 빠지지 않고 산과 물로부터 내면수양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으로써, 산수를 대하는 유학자의 일반적인 인식태도를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명의의 해석 등에서 이끌어내는 의론부의 입론을 유학적 사고체계에 두는 것은 여타 문인들의 누정기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전고 인용이 다양하고, 명의를 해석하는 과정의 기교가 세련된 것은 탁영 문의 特長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탁영이 시문을 통해 실으려고 했던 소위 ‘도’라는 것은 유교 일반의 논리인 경우도 있었겠지만, 나아가 사림으로

23) 惟仁者 然後能樂山 惟智者 然後能樂水 三月不違者 殆庶幾於仁 百世可知 可謂智未及於此 而徒馳情於山水 不幾於自誣乎 夫人莫不具仁智之性 而鮮能充仁智之端 能充其仁智 非吾分外之物 體山之靜而不遷 體水之動而無滯 安一心之德 周萬物之變 則二者之真樂 吾得而兼之矣(이요루기).

서 지나는 세계관이나 현실인식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의 사유인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탁영은 김종직을 종장으로 하는 사림의 일원임은 이미 말하였다. 탁영이 주로 활동하던 시대인 성조대에 이미 사림은 그 인적 관계와 연관적 수행을 통해서 당대 기득권층인 훈구세력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사림은 이념적 성향의 측면에서도 특징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조 상층 지식인의 이념적 바탕은 성리학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통치세력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들과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했던 처사적 문인들에게 있어서도 의리와 명분의 처세 철학을 제공했던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성종대 사림에게 있어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성리학이 실천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는 사실이다.²⁴⁾ 사림이 인간 보편의 윤리적 실천을 바탕으로 한 『소학』과, 생활 중의 예교와 법식을 규정하는 『주자가례』나 향약을 중시한 데서 드러난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의리실천을, 또 개인의 내면수양에 있어서는 윤리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사로에 진출해 주로 언관직을 수행함으로써 성리학적 이념을 현실정치에 구현하려는 쪽으로 실현되고, 후자는 충이나 효와 같은 실천적 윤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실현되었다.²⁵⁾

24) 尹絲淳, 『濯纓의 道學精神』, 『濯纓 金駟孫의 문학과 사상』(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230쪽.

25) 李秉然은 사림이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이념 구현이라는 공통 목표를 지니고 있었지만 학문적인 면에서 이 둘 중에 어느 한 쪽으로 경도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즉 후자가 경학 위주의 ‘爲己之學’에 치우쳤다면, 전자는 경학의 바탕 위에서 있기는 하되, 사장학 쪽을 좀 더 깊이 유념하는 ‘治人之學’에 기울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하고, 탁영은 다소 치인지학에 경도되었다고 하였다.(李秉然, 『朝鮮初期의 士林派와 濯纓의 현실인식 및 대응』, 민족문화연구원 편, 『濯纓 金駟孫의 문학과 사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8, 23쪽) 실제의 삶의 실현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가능할 수 있고, 또 실제 탁영의 문필행위나 관직 이력에서 그러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당대 사림의 내면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양자의 측면은 특별한 구분 없이 그들의 사상적

탁영의 세계에 대한 인식태도가 성리학적 실천윤리에 착근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관동록』에서 시가 충, 효와 같은 윤리적인 주제를 구현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이런 탁영의 생각은 다음을 통해서도 이는 분명해진다.

기타 각 사물들은 하나씩의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만물이) 자라나는 의미를 관찰하면 인심을 기를 수 있으며 향기로운 덕을 입을 수 있으며 요염을 경계할 수 있고, 풍상에 변하지 않는 절개를 보면 군자의 지조를 알고, 바위나 계곡의 그윽한 모습을 보면 은사의 욕심 없는 취미를 알 수 있고, 새나 짐승들이 낳은 새끼의 고운 털을 보면 정사를 배울 수 있고, 그 야성을 보면 또 그 가히 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맑은 구름 저녁 종소리 같은 것에 이르면, 성색과 기운이 천지간에 해당되는 것이 넓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물격에 따라 지극한 이치를 구함이 어떠하십니까?²⁶⁾

위는 성종이 안평대군의 <四十八詠>에 성종이 스스로 차운하고 탁영과 兪好仁 등으로 하여금 차운시를 짓게 하자, 탁영이 시를 지어 올리면서 함께 써서 올린 발문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 발문은 시의 소재가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임금이 사물을 보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고, 또 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해 간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인용문은 전체적 내용은 『대학』의 격물치지에 바탕을 둔 사물인식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식의 태도는 특별하다. 즉 사물을 통하여 성리학의 관념적인 사유를 이끌어 내고 있는 않다. 대신에 사물은 내면의

토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본다.

26) 其他物物 莫不有一種意思 可以觀生意 可以長人心 可以襲馨德 可以戒妖艷 觀風霜不變之節 而知君子有守之操 觀巖壑幽靜之態 而知隱士無求之趣 觀鳥獸之羣尾 翮毛 而可以發政 觀其野性 而又可以不畜 至晴雲暮鍾 聲氣之於天地間 所該者博矣 伏願殿下 隨物格得至理 如何(四十八詠跋).

덕을 기르고 정사를 생각하는 매개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임금에게 진언한 말이지만은 탁영 본인의 사물 인식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상이 꼭 임금일 까닭은 없고 자신을 포함한 당대 사대부가 마땅히 지녀야 할 덕목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탁영은 이러한 사물 인식의 태도를 지닌 작가로 주돈이, 장재, 소옹, 주희 등 송대 성리학자들을 들고 있다. 그는 이들의 시를 성리학적 도가 실현된 작품으로 본 것이다.

앞서 탁영의 누정기문이 입론-칭상-권계로 의론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았다. 즉 유학적 이념을 일반론으로 하고 이를 누정주인의 구체적인 정사행위와 수양방식에 연결시켜 칭상과 권계를 더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위에서 그의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유학의 실천적인 지향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과 기본적으로 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인식태도는 의론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세인은 말에 영리하였으나 그대는 홀로 어리석어서, 말하면 시기를 받고, 세인은 모양내는 데 능하거늘 그대는 홀로 그 행동이 어리석어 남의 미움을 일으킨다. 세인은 나아가는 데 교묘하여 벼슬을 얻으면 잃을까 염려하는데, 그대는 교리 청반으로서 스스로를 낮추어 벽지의 현감이 되었으니, 이는 벼슬에 어리석음이다. 세인은 일하는 데 재빨라서 백성을 다스리면 먼저 이름을 앞세우고 웃사람을 받들면 칭찬을 앞세우는데, 그대는 홀로 태연히 재각에 앉아 읊조리면서 교활한 토호를 배격하고, 흠아비와 과부를 위로함을 마음으로 삼고, 세금을 독촉하는 데는 둔하였으니, 이는 정사에 어리석은 것이다... 역경은 기이함을 숭상하고, 예기는 변함을 숭상하였으니, 옛 성현이 사정을 알맞게 헤아려서 능히 소통시켰다. 그러한 경우가 하나가 아닌 만큼 그대가 또 어리석음만을 오로지 고집하는 것은 안될 것이오.²⁷⁾

27) 世人慧於辭 子獨癡其言 發而觸忌 世人便於貌 子獨癡其動止 使人生憎 世人巧於進取 得一資而患失之 子以校理清班 自貶爲僻縣之監 此則癡於仕也 世人捷於應務

황후는 안상의 자질을 지니고 또 이치에 통달하였는데, 문득 아버지 봉양을 위해 이 고을을 맡았다. 이미 그 아버지에게 인을 행하고, 또 그 효행을 가르쳐서 백성을 다스린 것이다. 얼마되지 않은 백성을 부리며, 척박한 토지에 세금을 거두되, 그 조치를 알맞게 하고, 문서에 따라 부세를 바치니...황후가 능히 이 경지에 이르러, 학문이 천리가 유행하는 극치에 이르고 그 무사함을 행한다면, 높은 산과 흐르는 물이 모두 나의 仁·智와 일체가 될 것이다. 황후는 여기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술에 빠지고 음악에 취하여 산에 올라 바라보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단지 은근히 높은 것은 산이요, 아득히 흐르는 것은 물임을 보고 그 빼어나고 맑은 것을 즐길 따름입니다. 또 장차 신을 삼고 산을 찾는 것을 사강락처럼 하고, 금을 던지고 공무를 폐함을 맹동야 같이 한다면, 두 가지 즐거움의 뜻에 도리어 누가 될 것입니다. 무릇 함께 산에 오르는 우리가 어찌 서로 힘쓰지 않으리오?²⁸⁾

첫 번째 인용문은 <치현기>의 내용이다. 누정명을 탁영이 직접 짓고 그 명의인 ‘어리석음(癡)’을 입론으로 하여 이로써 권자범의 덕을 부쳤다. 자범을 어리석다 하면서도 그 이면에 역설적 긍정을 숨겨두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우직하게 백성을 위하는 데 힘쓰니 그러한 것이 어리석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범의 用心하는 태도나 治理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들어 그것을 칭상의 資로 삼았다.

다음 인용문은 <이요루기>의 내용이다. 논어구 ‘二樂’을 의론의 입론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수 황린이 아버이를 봉양하기 위해 고을의 수령을 자청하고, 그러한 인의 마음을 백성에 미쳐 효행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臨民則先名 奉土則先譽 子獨頽然坐嘯齋閣 擊豪猾 撫鰥寡爲心 而拙於催科 此則癡於政也 …易尚奇 禮尚變 古之賢聖 適度而能通 此類不一 子又不可專守癡也(치현기).

28) 侯以安詳之資 且達於理 便養乞郡 既能仁於其親 而教其孝以治一境 役鮮少之民 賦磽躋之土 措置得宜 能應簿書而供賦征 …侯能於此致曲 學至於天理流行之極 而行其所無事 則高山流水 乃吾仁智之一體矣 侯其勉之哉(이요루기).

하였다. 또 지혜로운 공무집행으로 적은 백성과 척박한 토지에도 모든 조치가 마땅함을 얻고 부세의 소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의론부의 칭상과 권계에는 관리가 이르게 된 실제적인 처리의 공이나 수신의 성취, 또는 윤리의 실천을 적시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 의식이 뚜렷하다. 이런 작가의식은 <조현당기>에서 그 누정주가 비록 산중승려였으나 그를 평가하여서는 ‘내 듣거니, 나화상이 어버이를 모심이 매우 지극하였다. 젊어서는 당세에 어진 사람에게 재물을 구하여 그 형제 중 혼자되어 혼인하지 못한 사람 일곱을 시집보내고, 그 능력 없는 사람 셋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으니 능히 인애를 다하였다. 이 가히 기록할 만한 일이다.’²⁹⁾라고 하는 데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탁영 기문의 의론부에서 칭상을 넘어 누정주에 대한 권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전대 기문에서 그 예를 쉽게 찾을 수 없음을 말하였다.³⁰⁾ 그런데, 탁영이 누정주에 대해 권계를 포함시켜 의론의 구성으로 삼은 것은 이 역시 사림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을 실현시키려는 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김종직의 추천으로 사료에 든 성종대 사람들은 대개 연관직에 종사하였다. 언론을 통하여 그들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시키고, 또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정권을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훈구파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가려 했다고 볼 수 있다. 탁영 역시 주로 연관직을 역임하였고 여러 차례 정치적, 사회적 신임을 드러내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곧 다스리는 54개 관청에 반포하였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봉장을 올리 지 않으니 신이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와 같은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는

29) 吾聞 螺事親甚孝 少求資於當世之仁者 嫁其兄弟之孤不能嫁者七人 家其不能者三人 而能盡恩愛 是可記也.

30) 고려조나 조선초기의 누정기문에서 권계를 포함하는 경우는, 누정주를 임금으로 한 서거정과 홍귀달의 <環翠亭記> 정도를 들 수 있겠다. 탁영 이후의 누정기문 대해서는 좀더 상고할 필요가 있다.

괜찮다고 하나, 마음에 품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아되어야 하는 애군충국의 도가 아닙니다. 신이 선왕 때에 벼슬하여 녹을 먹은 지 10년이고 관이 5품에 이르러 국은이 이미 두터운데, 마음에 거리낌 없이 한 마디 말로 선왕에 보답함이 없고, 지금 또 스스로 조심하여 전하의 큰 뜻을 저버린다면 신의 죄는 더욱 깊을 것입니다. 평생의 배운 바를 어디에 쓰겠습니까?³¹⁾

탁영이 연산군 원년에 올린 시무 26개조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왕은 중앙 정치의 중심이다. 왕에게 적극적으로 치국의 이념을 진언하는 것이 애군충국의 도리라고 생각한 탁영이었고, 그것은 당대 사람의 일반적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지방정치의 중심인 지방관에 대해 유학의 도리를 내세워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은 탁영에게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왕에게 임금으로서의 수양과 중앙정치의 방안을 제시할 수단이 상소였다면, 기문은 탁영이 사람으로서 평소 지론으로 삼았던 지방 정치의 이념이나 지방관이 지녀야 하는 덕목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結論

누정기는 한문문체의 하나인 ‘記’에 속한다. 記는 산수유람과 같은 어떤 사건, 書畫 등과 같은 어떤 사물, 또는 여러 형태·용도를 지닌 건축물 등을 소재로 하는 산문 형식의 글이다. 누정은 대개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면서, 사면이 개방되어 四圍를 조망할 수 있는 형태를 지닌 전통적 건축

31) 卽布所管五十四官 至今無一人封章投進者 臣實痛心……若此者 自爲則 可矣 皆非有懷必陳愛君忠君之道 臣釋褐先朝 食祿十年 居官五品 國恩已厚 而悠悠碌碌 無一言以報先王 今又自愼 以孤殿下之隆旨 則臣罪益深矣 平生所學 將何用之(『燕山君日記』卷5 1年 5月 庚戌).

양식의 하나이다. 누정기는 누정을 소재로 한 記文이라고 할 수 있다.

記의 正體는 소재가 되는 事象에 대한 비망기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유지하는 작품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의 ‘變體’란 의론이 전체 구성에서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상, 기문을 정체와 변체로 구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문체양식으로서의 기의 정형은, 오히려 의론이 끼어 든 구성, 즉 前敘事와 後議論의 두 서사단락을 지닌 형태가 된다.

누정기 역시 前敘事, 後議論의 구성방식이 정형이 된다. 사실기록의 측면에서 보면, 누정기문에서 기록 서사를 이루는 부분의 구성요소는 오늘날 설명과 같이 누정 주변의 지리적 환경, 개보수의 연혁, 인력동원 방식 등 건축물과 관련된 직, 간접적 내용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록하여 남기고자 하는 사실 정보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 누정기에서는 이러한 사실정보의 내용이 서사단락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단락요소가 들어가면 기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 기록 위주의 보고문 형식이 되어 문예몰로서의 가치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한 둘, 또는 몇 개 이하의 소재를 중심으로 기술될 때 주제의 일관성이 서고 수사적 표현도 풍부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누정기가 공해기나 학기 등과 달리, 건축물 소재의 기문 중에서도 특별히 문예 미학적 성취가 높은 것은 누정이 지니는 기본적인 성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누정은 위치, 용도, 명의 등에서 다른 건축양식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누정이 법도나 예식에 매인 경직된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심미감을 자극하는 장소인 점은 작가의 작의에 무의식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문예미를 높이려는 작가의 의도는, 특히 누정이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는 점과 어울려 자연경물의 묘사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누정기문에서 樓亭名도 기문 양식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 또한 기문의 청탁과 수락의 과정도 누정기의 특징적인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처럼 누정기는 사실정보를 적의하게 연변시킴으로써 다양한 구성 방식을 취할 수 있고, 그 문장기술이나 표현방식 즉, 문예미를 추구하는 방식에 작가적 개성을 드러낸다. 또한 입론을 중심으로 논리 전개를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지닌 사유의 일단이 개입된다. 따라서 누정기는 그 형식미와 내용상의 주제의식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이해와 검토가 필요한 양식인 것이다.

탁영 누정기의 서사부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작가 자신이 서술의 주체가 되어 누정에 이르게 된 연고나, 기문 청탁 시기의 일상 그리고 누정에 이르는 도정의 승경을 묘사하고 있는 점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은 탐닉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을 경험한다는 것은 유가의 가르침, 특히 사람이 지향하는 이념의 일단을 실천적으로 체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탁영이 경물 서사부분에서, 누정을 자연 속에 그저 있는 대상물이 아니라, 스스로 애써 찾는 수고를 겪은 후에 도달하는 곳으로 그린 것은 이런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누정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한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연을 통해서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이념적 지향이 응집되고 귀결된 지점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정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차원의 성찰의 공간이 되는 셈이다.

탁영이 의론을 전개하는 방식은 나름의 독특한 구성을 지닌다. 즉 입론과 누정주에 대한 칭상이 인과적인 연결성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탁영 누정기에서 특기할 사실은 누정주인이나 누정에 관계한 지방관에 대한 칭상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론을 바탕으로 누정주에 대한 칭상에서 권면과 감계를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탁영 누정기에서의 이런 구성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우선, 입론으로 삼은 유학적 이념이 공소한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인의 행위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인다. 다음에, 단순히 칭상만 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어떤 근거에 바탕을 두는 것인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자칫 실상을 넘은 과도한 찬사나

다른 목적을 숨긴 阿諛과 같은 행위로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계는 또 이런 점에서 칭상 일변도의 구성이 지닐 수 있는 문제를 불식시킬뿐더러, 입론에서 보여주었던 유학적 이념을 부정주인 개인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인 문제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탁영은 시가 단순히 자연을 읊고 私的 감정을 유포시키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道’가 말의 정수를 빌어 사람에게 감발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詞章은 비록 말기이지마는 도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탁영의 시에 관한 견해이지마는 실제로는 시문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학적 이해방식은 그의 부정기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그는 의론부의 입론을 유학적 의미체계로 접근시키려는 의도를 뚜렷이 드러낸다. 즉 ‘도’를 실으려는 작가의식의 개입이다. 그러나 탁영이 시문을 통해 실으려고 했던 소위 ‘도’라는 것은 유교 일반의 논리인 경우도 있었겠지만, 나아가 사림으로서 지니는 세계관이나 현실인식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의 사유인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탁영은 김종직을 종장으로 하는 사림의 일원임은 이미 말하였다. 성종대 사림에게 있어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성리학이 실천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림이 인간 보편의 윤리적 실천을 바탕으로 한 『소학』과, 생활 중의 예교와 법식을 규정하는 『주자가례』나 향약을 중시한 데서 드러난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의리실천을, 또 개인의 내면수양에 있어서는 윤리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사료에 진출해 주로 언관직을 수행함으로써 성리학적 이념을 현실정치에 구현하려는 쪽으로 실현되고, 후자는 충이나 효와 같은 실천적 윤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실현되었다.

탁영 기문의 의론부는 전대의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입론과 칭상, 또는 입론-칭상-권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구성은 그의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유학의 실천적인 지향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과 기본적으로 상통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칭상과 권계

에는 관리가 이르게 된 실제적인 치리의 공이나 수신의 성취, 또는 윤리의 실천을 적시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 의식이 뚜렷하다.

탁영이 누정주에 대해 권계를 포함시켜 의론의 구성으로 삼은 것은 이 역시 사림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을 실현시키려는 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탁영은 주로 언관직을 역임하였고 여러 차례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드러내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왕에게 적극적으로 치국의 이념을 진언하는 것이 애군충국의 도리라고 생각한 탁영이었고, 그것은 당대 사림의 일반적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지방정치의 중심인 지방관에 대해 유학의 도리를 내세워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은 탁영에게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왕에게 임금으로서의 수양과 중앙정치의 방안을 제시할 수단이 상소였다면, 기문은 탁영이 사림으로서 평소 지론으로 삼았던 지방 정치의 이념이나 지방관이 지녀야 하는 덕목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資料

『明宗實錄』.

『續東文選』.

『燕山君日記』.

權應仁, 『松溪漫錄』.

金駟孫, 『濯纓集』.

徐居正, 『四佳集』.

徐師曾, 『文體明辯』.

吳訥, 『文章辯體』.

韓愈, 『昌黎先生文集』.

洪貴達, 『許白亭集』.

2. 論著

김동준, 『16세기 누정한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金銀美, 『朝鮮初期 樓亭記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金貞仁, 『朝鮮中期 士林의 記文研究』, 국학자료원, 2003.

문범두, 『濯纓 金駟孫의 續頭流錄 攷』, 『韓民族語文學』 제51집, 韓民族語文學會, 2007.

尹絲淳, 『濯纓의 道學精神』, 『濯纓 金駟孫의 文學과 사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윤채근, 『조선전기 누정기의 사적 개관과 16세기의 변모 양상』, 『어문논집』 35, 안암어문학회, 1996.

李秉休, 『朝鮮初期의 士林派와 濯纓의 현실인식 및 대응』, 민족문화연구소 편, 『濯纓 金駟孫의 文學과 사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98.

이강로 · 장덕순,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 시인사, 1987.

Abstract

A Study on the Kim Il-son(金駙孫)'s Nujeong-gi(樓亭記)

Moon, Beom-Doo

Kim Il-son(1464-1498) was a scholar and government official of Josun dynasty. He wrote six pieces of nujeong-gi. I expect to find the aspects of literary expression and writer's intent through analyzing of them.

Nujeong-gi is one of the traditional literary style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 Korea and China in the middle age. This originally aims to record the facts about the nujeong which is the old building style for enjoying music and poem, having meeting and teaching children and so on. And the plot of nujeong-gi is consisted of reporting about expense, duration, the number of works which need to construct a nujeong. But, on the other hand, a writer can change the narrative to obtain his own aesthetic pleasure and to express his thinking of politics and society.

The expression of nature in his works is unique in comparison with other's works. He simply isn't draw visual things but tries to see something between nature and his internal thinking. And another feature of his works is to express the passage while he get to nujeong. He was a member of Sarim(士林) which was a revolutionary scholar group who studied Confucianism in Joseon Dynasty. They regarded the nature as a place that they can train their mind and find the universal truth. His expression of nature means that he understood the nujeong as the symbol of Sarim spirit, not just the place of amusement. The plot of his works has a series of meaning system, that is, main idea-applause-advice. It makes us believe that the main idea actually can come true.

Sarim took a serious view of practical moral of Confucianism as like loyalty and filial piety, not ideological thinking. It is sure that Kim intended to insert

this ideology into controversial part of each work. We can find it through his applause and advice for local official. He has tried to improve social problems by writing activity. And he appealed to his king several times. I am sure, Kim thought that his nujeonggi was the best effective method which he could express his opinion of local political ideology and the virtue local official must have.

Key-words : Sarim(士林), Kim Il-son(金駟孫), Gi(記), Nujeong-gi(樓亭記), Confucianism(儒學).

문범두

진주산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주소 : 경남 진주시 주약동 현대성우트리팰리스 B동 301호

전화번호 : (055)751-3468, 010-9771-5608

전자우편 : bdmooon@jinju.ac.kr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09년 12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09년 12월 14일 게재 확정됨.